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네팔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2020년3월18일 | 책임조사역(G3) 이광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147천 km <sup>2</sup> 	<b>인구</b> 28.5백만 명 (2019년 기준) 	<b>정치체제</b> 공화제 	<b>대외정책</b> 비동맹중립 
<b>GDP</b> 298억 달러 (2019년 추정) 	<b>1인당GDP</b> 1,047 달러 (2019년 추정) 	<b>통화단위</b> Napalese Rupee(NR) 	<b>환율(\$기준)</b> 112.40 (2019년 평균) 

- 히말라야 산맥 서남부에 위치한 네팔은 중국,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2008년 5월 공화정 수립을 공식 선포한 이후 정치적 혼란기를 거쳐 2017년 11월 연방 의회 선거가 개최되어 현 집권 여당이 압승 하였음. 대통령이 국가원수이나 총리가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 중이며, 의원내각제와 양원제의 정치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최근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한 해외노동자 송금액이 민간소비 증가세를 이끌었으며, 정치적 안정 지속에 힘입은 민간투자의 확대로 2019/20회계연도의 경제성장률이 7.1%를 기록하며 반등할 것으로 예상됨.
- 석가모니의 탄생지인 룸비니, 히말라야 산맥 등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관광업 활성화 정책으로 향후 관광 부문의 성장 잠재력이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4. 5. 15 수교 (북한과는 1974. 5. 15)

**주요협정** 영사협정('69), 무역협정('71), 차관공여협정('97), 이중과세방지협정('03), 항공협정('05), 문화협정('05), 무상원조협정('15)

###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주요품목
수 출	34,484	35,038	48,199	건설광산기계, 자동차, 합성수지
수 입	1,907	2,038	2,921	섬유제품, 의류, 식물성물질

**해외직접투자현황(2019년 9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12건, 11,797천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sup>e</sup>
경제성장률	3.3	0.6	8.2	6.7	7.1
소비자물가상승률	7.2	9.9	4.5	4.2	4.5
재정수지/GDP	0.7	1.4	-3.1	-6.7	-4.3

자료: IMF, EIU

### 민간소비와 총투자 확대에 힘입어 연간 경제성장률 반등

- 최근 5개년 평균 GDP 대비 75.6% 비중을 차지한 민간소비는 2019/20회계연도 중 전년대비 10.2%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최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해외노동자 송금액이 소매, 부동산 부문 거대로 유입되어 민간소비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됨. 2018회계연도 기준 GDP 대비 28% 수준을 기록한 해외노동자 송금액은 네팔 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임.
- 주요 인력수요 국가 중 하나인 말레이시아의 네팔 노동인력에 대한 유입 중단조치가 2019년 9월 종료되면서 향후 민간소비 증대로 이어지고, 경상수지 적자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총투자는 2019년 GDP 대비 62.3%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발전설비 확충, 정치적 안정에 힘입은 민간투자의 확대로 전년대비 29.0% 증가하여 경제성장세 반등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됨.
- 총투자는 2015년 4월 수도 카트만두 서쪽 80km 지점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7.9의 대지진 발생 후 피해 복구작업 추진에 힘입어 최근 5년간 연평균 26.9%의 성장세를 기록하였음.
- 또한 네팔 정부가 발전용량 456MW, 총 441백만 달러 규모의 Upper Tamakoshi Hydroelectric Project와 약 55백만 달러 규모의 제2 국제공항인 Gautam Buddha 국제공항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을 선언하여, 향후 투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은행 등은 최근 보고서에서 네팔 경제가 해외 노동자 송금 유입 및 인프라 투자 지속, 관광객 유입 확대 등에 힘입어 6% 후반대의 경제성장세를 이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네팔 정부는 2019/20회계연도('19.7월~'20.7월)의 경제성장 목표치를 8.5%로 설정하였으나, 경제정책 실행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편임.

#### < 각 기관별 네팔 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

	세계은행	IMF	ADB	EIU	네팔 정부
FY2020/21	6.4	6.3	6.3	6.9	8.5
FY2021/22	6.5	5.8	-	6.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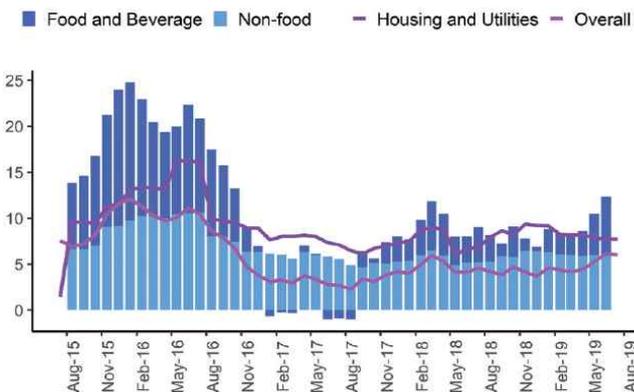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

## 국내경제

### 식음료 부문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주도할 전망

- 2018/19회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음료 부문의 약세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4.2%를 기록 하였으나, 2019/20회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9년 말부터 가속화된 식음료 부문의 상승세로 인해 4.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말의 식음료 물가 급등은 2019년 7월 네팔 정부가 개시한 인도산 과일과 채소에 대한 농약 성분 등 검역관리 강화 조치로 인해 수입물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 내륙국인 네팔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인도인 점, 네팔 루피화 가치가 인도 루피화에 고정되어 있는 점에서 네팔의 물가는 역사적으로 인도의 물가상승률과 동조화되는 경향을 보여 왔음.
- 네팔 중앙은행은 네팔 루피화 가치를 인도 루피화에 1.6(네팔 루피):1(인도 루피)의 비율로 고정시키는 정책을 유지 중이며, 2019년 7월 기준금리를 1회 인하(5.0% → 4.5%) 한 바 있음.

<FY2015 이후 물가상승률 및 항목별 기여율>



자료: 세계은행

<2000년 이후 인도와 네팔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IMF

### 정부지출 확대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예산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인프라 구축 및 보조금 지급 등으로 정부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7/18회계연도에는 전년대비 47.1%, 2018/19회계연도에는 33.0%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 같은 기간 GDP 대비 각각 -3.1%, -6.7%를 기록하였음.
- 다만, 2019/20회계연도에는 대지진 복구 관련 일회성 지출의 집행이 완료되고,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주요 대형 프로젝트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정부지출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3%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네팔 재무부는 2019/20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전년대비 12.4% 증가한 총 136.7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나,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23.2%의 재원이 외국으로부터의 차관 및 무상 원조에 의존하고 있어 세수 확보를 통한 예산 마련 노력이 시급한 상황임.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sup>e</sup>
경 상 수 지	2,447	-168	-1,033	-2,775	-2,028
경상수지/GDP	11.4	-0.8	-4.1	-9.6	-6.8
상 품 수 지	-5,698	-8,002	-9,365	-11,916	-11,086
상 품 수 출	813	762	836	929	1,099
상 품 수 입	6,511	8,764	10,200	12,844	12,185
외 환 보 유 액	7,906	8,476	9,139	8,045	8,263
총 외 채	4,152	4,227	4,634	5,402	6,473
총외채잔액/GDP	19.4	20.0	18.4	18.6	21.7
D.S.R.	7.5	7.3	7.4	6.7	6.1

자료: IMF, EIU

### 상품수입 확대로 발생한 경상수지 적자 폭이 점차 축소될 전망

- 2015년 대지진 발생 이후 피해 복구를 위한 자본재 등의 수입으로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2018/19회계 연도까지 급격히 증가하여 GDP 대비 -9.6% 수준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복구사업의 상당 수준 진행에 따른 수입 수요 증가세 둔화, 인도산 농산품에 대한 검역 강화 등에 힘입어 향후 상품수지 적자 폭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해외노동자 송금 규모 확대에 따른 소득수지 개선으로 경상수지 적자 폭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2019/20~2020/21회계연도 기간 중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규모에 대하여 EIU는 -6.5%에서 -4.5%로, 세계은행은 -7.7%에서 -6.8%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외채상환능력

### 외환보유액과 총외채규모는 양호한 수준이나 총외채는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적자 지속의 영향으로 2018/19회계연도에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월평균 수입액 대비 6.4개월, 단기외채 잔액의 12.3배 수준을 기록하였음. 경상수지 회복을 바탕으로 2019/20 회계연도에는 월평균 수입액 대비 6.9개월, 단기외채 잔액의 12.7배 수준으로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 한편,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총외채는 2019/20회계연도에 GDP 대비 21.7%, 총수출 대비 180.8%를 기록하였고, 향후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구조적취약성

### 수출산업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해외송금 및 원조자금에 의존하는 경제구조 지속

- 네팔의 인접국들은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봉제산업을 육성, 상품수출을 확대한 반면, 네팔은 산업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수출산업 육성이 미진하여 경제 규모 대비 과도한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 중임.

< 네팔과 인접국의 상품 수출입 규모(FY2018/19) >

(단위: 백만 달러)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상품수출(A)	929	11,890	38,687	24,827	11,076	
상품수입(B)	12,844	22,233	55,600	57,435	15,410	
상품수지	(A-B)	-11,915	-10,343	-16,913	-32,608	-4,334
	(/GDP, %)	-41.0	-11.6	-5.9	-10.4	-0.6
B/A(배)	13.8	1.9	1.4	2.3	1.4	

자료: IMF

- 네팔은 그동안 무역적자를 메우는 수단으로 해외근로자의 송금 및 원조자금을 활용해 왔으나, 대외적인 변수의 영향으로 외환보유고 감소, 외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음.

## 성장잠재력

###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 네팔은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해발 8,848m)을 비롯한 히말라야 산맥의 해발 8,000m급 봉우리 8개, 석가모니의 탄생지인 룸비니, 세계적인 힌두교 사원 등 관광자원이 풍부함. 네팔 정부는 'Visit Nepal 2020 Campaign'을 추진하여 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광객을 늘리고자 함.
- 현재 건설 마무리 단계인 네팔 제2 국제공항인 Gautam Buddha 국제공항은 룸비니에서 약 3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당초 예정대로 2020년 중 개항할 경우 룸비니에서 약 300km 떨어진 카트만두 Tribhuvan 국제공항에 비해 룸비니로의 관광객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정책성과

### 실효성 있는 경제발전 계획 수립 필요

- 네팔 정부는 2024년 UN 분류기준에 따른 최빈개도국(Least Development Country) 지위를 졸업하고 2030년까지 중진소득국(Middle-income Country)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18년 5월 'Prosperous Nepal, Happy Nepalese'를 새로운 경제발전 비전으로 설정하고 향후 5년 동안 매년 10% 이상의 경제성장률 달성, 농업의 현대화·상업화, 도로 및 전력 인프라 확충 등을 골자로 한 경제발전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정책 성과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짐.

## 정치동향

### 2008년 5월 공화정 선포 이후 실시된 2017년 연방 하원의회 선거에서 공산당 압승

- 네팔의 정치체제는 1990년대부터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약 30년간 급격한 변혁기를 거쳤으며, 2017년 연방 의회 선거에서 공산당이 압승하면서 극심했던 정치적 혼란이 일단락된 것으로 평가됨.
- 1996년 왕정 폐지를 두고 내전이 발생하여 약 10년간 지속되었고, 12,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2008년 제헌의회가 개최되며 공화정 도입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나, 이후 제헌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던 중 2015년 4월 대지진이 발생하며 헌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압박이 높아져 비로소 2015년 9월 헌법이 최초로 공포되었음.
- 헌법에 따라 2017년 11월 개최된 연방의회 선거에서 친중 성향의 공산당 연합(Nepal Communist Party, NCP)이 총 275개 하원의석의 63.3%를 차지하며 친인도 성향의 중도 좌파인 네팔 의회당(Nepali Congress, NC)에 압승, 2020년 3월 현재까지 집권 중임.

### 2022년까지 정치적 안정성이 유지될 전망

- 공산당 연합을 이끌고 있는 카드가 프라사드 올리 현 총리와 푸시파 카말 다할 현 공산당 대표는 애초부터 집권 기간 중 총리직을 번갈아 맡기로 하였으나, 2019년 8월 올리 총리가 다음 총선이 예정된 2022년 말까지 총리직을 유지하는 대신 다할 대표가 공산당을 이끄는 것으로 변경 합의하면서 정치적 안정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17년 선거에서 네팔 국민들은 공산당 연합의 구호였던 '안정을 통한 번영'을 기대하고 크게 호응하였으며, 이후 2019년 11월 보궐 선거 결과 국민적 지지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 마련,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연방제의 안정적인 정착, 남부 인도 접경지대에서 거주 중인 친인도 성향의 주민들과의 화합 등이 향후 집권 공산당의 주요 정책 과제로 분류되고 있음.

## 사회동향

### 카스트 제도에 근거한 차별 지속

- 10년마다 실시되는 네팔 통계청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2011년 네팔에는 123개의 언어와 125개의 카스트/민족 구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됨.
- 네팔 정부는 1963년 공식적으로 카스트 제도의 폐지를 선포하였으나, 인구의 81.3%가 힌두교도인 네팔에서 힌두교와 카스트 제도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다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네팔 사회에서 카스트 제도 및 이에 근거한 차별이 없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국제관계

### 인도에 대한 높은 의존 지속

- 인도와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밀접했으나 대등하지 않았음. 대표적인 사례로 2015년 9월 네팔의 헌법 개정 관련 인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 남부 인도 접경지역의 인도계 소수민족이 국경을 봉쇄하여 약 5개월간 네팔-인도 교역이 중단되면서 극심한 정치·경제적 혼란이 발생하였음.
- 네팔 통계청에 따르면 2018/19회계연도 중 인도와의 무역거래는 수입 81.2억 달러, 수출 5.6억 달러로 각각 전체의 65.0%, 64.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어 인도는 내륙국인 네팔의 경제 부문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실리 외교의 성과와 한계

- 네팔은 남쪽으로 인도, 북쪽으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다양한 부문에서 두 국가로부터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임. 2017년 집권한 공산당 연합은 두 국가 간 견제와 균형을 적절히 활용하여 실리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외교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2019년 9월 네팔은 인도로부터 69km 길이의 송유관 개설 프로젝트의 추진을 선언하였고, 900MW 규모의 Arun-3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인도와의 경제 부문 협력을 강화하였음.
- 한편, 2019년 10월 중국 국가주석으로는 23년만에 시진핑 주석이 네팔을 국빈 방문하여 일대일로 사업 관련 협력을 논의하는 등, 네팔은 중국이 전략적인 접근을 취하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19년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인도와 중국 모두 네팔을 협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와 관련해 대규모 반인도·반중국 시위가 있었으나 네팔 정부로서는 이렇다 할 해결 방안은 없는 상황임.
- 대표적으로 인도는 2019년 8월 네팔과의 오랜 국경 분쟁지역이었던 칼라파니를 네팔과 협의 없이 자국 영토로 표기한 새로운 영토 지도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음. 현재 칼라파니 지역은 인도군이 무력으로 점령 중임.
- 또한 같은 시기 중국 역시 티베트 접경 지역 도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네팔 북부 영토 약 36만 m<sup>2</sup>를 강제 편입시킨 것으로 드러났음.

##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태도 및 외채구조 양호

- 2019년 9월말 기준 네팔에 대한 OECD 회원국의 ECA 지원잔액은 89.2백만 달러로, 이 중 연체 또는 리스케줄 금액은 없으며 외채상환 태도 자체는 양호함. 한편, 상대적 경제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인접국 대비 ECA 지원규모\*가 현저히 적으며, 이는 네팔의 낮은 국제 금융시장 접근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방글라데시 37.6억 달러, 스리랑카 18.8억 달러, 파키스탄 30.9억 달러('19년 9월말 기준).

- 한편, IMF는 2011년 1월 채무상환능력보고서(Debt Sustainability Analysis)에서 네팔의 외채상환 불가능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음.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6등급(2019.06)	6등급(2018.06)

### 최초로 국제신용등급을 부여받기 위한 시도 중

- OECD는 2014년 6월 거시경제지표 개선, 외채상환 태도 등을 반영하여 네팔의 신용등급을 기존 7등급에서 6등급으로 1등급 상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 중임.
- 2019년 12월 네팔 정부는 국제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기 위해 Fitch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2020년 3월 현재까지 최종 평가등급은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네팔 경제는 해외노동자 송금액 증가, 정치적 안정 등에 힘입어 2019/20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이 7.1%를 기록하며 둔화되었던 성장세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됨. 네팔 정부는 2024년까지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더욱 확고한 경제성장세와 성장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공산당 연합이 2017년 11월 연방 의회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확보된 정치적 안정성은 2022년 말까지 유지될 전망이며,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 다만, 전체 수입액의 65% 이상을 인도로부터 수입할 정도로 인도에 의존적인 경제구조, 인접한 양대 강국인 인도와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존재함.
- 향후 인프라 확충 및 정부의 국정운영 체계 개선 여부가 네팔의 경제성장과 국가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